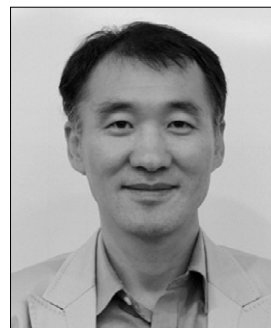


# 가족관계 만족도의 특징과 사회적 함의

*Family Relationships Satisfaction and  
Its Social Implications*



박중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가족관계는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최근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가족관계 특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관계 중에서 결혼생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약 10%p)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녀와 대화정도'였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문화생활'이었다. 가족관계 척도의 특징적 현상은 외형적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높았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존중과 배려라는 형식적 관계는 원만하지만, 내밀한 친밀성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남녀의 차이도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는 가사분담과 배우자 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자녀 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1. 들어가며

가족관계는 가족 내 구성원 상호 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권력이나 역할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심리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1)</sup>. 이와 같은 가족관계는 시대에 따라서 그 특성도 변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가 다양화

되고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가족관계의 특성은 더욱 급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족관계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는 사회복지 임상 현장에서 서비스나 상담, 치료 전후의 효과로서 가족관계 변화를 측정할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가족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sup>2)</sup>나 조손가족 대상 표현예술치료프

1) 양옥경(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pp.119~147.

2) 강선경(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 pp.109~136.

로그램이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를 향상 시켰다는 연구<sup>3)</sup>, 공격성 행동을 보이는 반항성 장애아동의 가족관계 향상에 미술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sup>4)</sup>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 가족관계는 생활만족도나 우울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요인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가족 결속력과 가족 표현력이 높고 가족 갈등을 적게 인지하는 아동이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up>5)</sup>,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가족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그러나 이와 같이 가족관계가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측면의 예측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다만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최근 연구는 기혼여성의 여가 관련 요인이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sup>7)</sup>, 직장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여가만족의 매개효과<sup>8)</sup> 정도가 두드러진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관계의 일반적 경향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가족관계의 일반적 경향성은 남편과 아내의 각 입장에서 본 결혼생활만족도와 자녀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이다. 가족관계의 일반적 경향은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가족관계 영향요인분석은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2. 가족관계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sup>9)</sup>

### 1) 결혼생활 만족도

한 가족에서 결혼생활은 두 배우자의 삶의 전체이지만, 상호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차별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생활 만족도는 남편과 아내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분석결과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만족’ 하는 비율은 53.1%, ‘매우 만족’ 하는 비율

3) 구향숙(2013). 조손가족을 위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5(3), pp.271~294.

4) 이은진(2005). 미술치료가 반항성 장애 아동의 공격행동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1(3), pp.243~271.

5) 강란혜(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1(1), pp.39~52.

6) 김연수(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pp.229~256.

7) 임진선·이철원(2010).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여가 일치성과 여가참여 빈도에 따른 가족관계의 차이 분석, 여가웰니스학회지, 1(2), pp.41~48.

8) 김화선·최은정·양정남(2012).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83,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3), pp.83~96.

9) 본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하고 설명을 보완한 것임.

은 16.6%로, 전체 만족의 비율은 69.7% 수준이었다.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연령별로 불만족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남편의 결혼생활 불만족 정도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저학력층보다 고학력층의 남편 결혼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남편을 기준으로 저연령층에 비해서 고연령층, 그리고 고학력층에 비해서 저학력층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 남성보다 비취업 남성의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인의 비취업 상태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부인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우선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만족’ 하는 비율은 46.4%,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13.5%의 분포를 보여, 부인의 전체적인 결혼생활 만족 비율은 59.9%로 나타났다. 대체로 현재의 결혼생활에서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의 경우 부인의 결혼생활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학력층에 비해 저학력 층의 아내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이것은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나타난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와 동일한 경향성이다. 따라서 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일반적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결혼생

표 1. 기혼가구(15~64세)의 응답자특성별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기혼남성	0.0	2.2	28.1	53.1	16.6	100.0(1,231)	
연령	15~29세	-	-	12.7	45.6	41.7	100.0( 21)
	30~39세	-	1.0	11.5	60.4	27.1	100.0( 209)
	40~49세	-	1.0	28.3	57.8	12.9	100.0( 362)
	50~59세	0.1	2.3	33.8	48.2	15.5	100.0( 463)
	60세 이상	-	6.2	34.0	48.6	11.2	100.0( 17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2	1.3	41.1	46.8	10.7	100.0( 210)
	고등학교	-	2.6	33.5	52.1	11.8	100.0( 547)
	대학 이상	-	2.1	16.1	57.1	24.6	100.0( 474)
취업여부	취업	-	2.0	27.2	53.5	17.2	100.0(1,055)
	비취업	-	3.7	33.4	50.4	12.5	100.0( 176)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할 만족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남편과 달리 취업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비취업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불평등성과, 과중한 가사부담으로 인해 취업여성이 겪는 일가족양립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2) 자녀 만족도

자녀 만족도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자녀와의 대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만족' 하는 비율이 52.9%,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이 14.2%로, 전체 만족 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에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녀와의 대화정도 만족도에서

남성은 전체 78.7%, 여성은 81.0%로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며 성별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문화생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만족' 하는 비율은 34.9%,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9.4%로, 만족하는 전체 비율이 44.3%로 나타났다. 자녀 만족도 4개 문항 중에서 가장 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이는 학교생활과 기타 학습활동이 자녀의 일상 활동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함께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자녀와의 문화생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성적, 취업 등)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만족' 하는 비율은 47.3%,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10.8%로 전체 만족도는

표 2. 기혼가구(15~64세)의 응답자특성별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기혼여성	0.5	5.2	34.5	46.4	13.5	100.0(7,044)	
연령	15~29세	-	4.9	17.7	52.5	24.9	100.0( 386)
	30~39세	0.7	3.2	26.1	51.2	18.9	100.0(2,190)
	40~49세	0.8	4.9	35.8	47.2	11.3	100.0(2,500)
	50~59세	0.2	7.4	45.8	38.7	7.9	100.0(1,806)
	60세 이상	0.3	12.6	39.1	39.1	9.0	100.0( 16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0.6	11.3	50.2	32.8	5.1	100.0( 947)
	고등학교	0.6	5.4	39.5	45.6	8.9	100.0(3,213)
	대학 이상	0.5	2.9	23.7	51.7	21.2	100.0(2,883)
취업 여부	취업	0.6	5.6	35.1	43.9	14.8	100.0(3,293)
	비취업	0.5	4.8	33.9	48.6	12.3	100.0(3,750)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 기혼가구(15~64세)의 성별 자녀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대화정도	전체	0.6	4.6	27.7	52.9	14.2	100.0(9,347)
	기혼남성	2.3	9.5	33.5	45.2	9.5	100.0(1,636)
	기혼여성	0.3	3.5	26.5	54.5	15.2	100.0(7,711)
문화생활	전체	1.6	16.7	37.2	34.9	9.4	100.0(9,344)
	기혼남성	4.6	24.0	37.7	26.9	6.8	100.0(1,636)
	기혼여성	1.1	15.1	37.1	36.6	10.0	100.0(7,708)
기대충족 정도	전체	0.7	6.4	34.8	47.3	10.8	100.0(9,343)
	기혼남성	2.4	8.5	39.0	41.0	9.1	100.0(1,634)
	기혼여성	0.4	6.0	33.9	48.6	11.1	100.0(7,709)
전반적 만족도	전체	0.6	3.2	29.0	55.4	11.8	100.0(9,348)
	기혼남성	2.2	5.8	34.9	48.5	8.6	100.0(1,636)
	기혼여성	0.2	2.7	27.8	56.9	12.4	100.0(7,712)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8.1%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만족 수준을 고려할 때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우리사회의 경쟁적 풍조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과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응답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대충족 만족도에서 남성은 50.1%, 여성은 59.7%로 나타남으로써, 기대충족 만족도의 남녀 인식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만족 비율은 67.2%로, '만족'이 55.4%, '매우 만족'이 11.8%이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세부 항목별 자녀관계 만족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징적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이다.

즉 자녀관계의 전반적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관계에서 갈등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전체 만족도는 57.1%, 여성의 전체 만족도는 69.3%로 나타나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관계 전반에서 불만족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 3) 가족관계 척도

본고는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관계를 측정하는 양옥경·김연수(2007)<sup>10)</sup>의 축약형 가족관

10) 양옥경·김연수(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pp.103~129.

계척도 15문항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당초 '정서친밀영역' 과 '수용 존중영역' 2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이 구분되지 않아 요인 구분 없이 분석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

답은 '매우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긍정적 응답을 정서적으로 좋은 가족관계로 해석하였다.

15개 문항 중에서 남녀를 합한 전체 긍정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우리 가족은 도움이

표 4. 기혼가구(15~64세)의 성별 가족관계 척도

(단위: %, 명)

문항 <sup>1)</sup>	특성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①	전체	0.6	5.9	34.4	50.8	8.3	100.0(10,002)
	기혼남성	1.4	9.5	37.4	44.6	7.1	100.0( 1,789)
	기혼여성	0.3	5.2	33.8	52.1	8.6	100.0( 8,213)
②	전체	0.5	4.8	27.1	57.4	10.2	100.0(10,002)
	기혼남성	1.6	8.3	31.0	51.1	8.0	100.0( 1,789)
	기혼여성	0.3	4.0	26.2	58.8	10.7	100.0( 8,213)
③	전체	0.3	4.7	29.8	54.2	11.0	100.0(10,002)
	기혼남성	1.3	8.1	33.2	46.6	10.8	100.0( 1,789)
	기혼여성	0.2	3.9	29.0	55.8	11.0	100.0( 8,213)
④	전체	0.7	8.6	35.2	44.8	10.7	100.0(10,002)
	기혼남성	1.6	11.6	40.2	38.5	8.0	100.0( 1,789)
	기혼여성	0.5	7.9	34.1	46.2	11.3	100.0( 8,213)
⑤	전체	0.5	4.6	23.1	58.6	13.2	100.0(10,002)
	기혼남성	1.3	8.4	26.4	54.7	9.2	100.0( 1,789)
	기혼여성	0.4	3.7	22.4	59.5	14.0	100.0( 8,213)
⑥	전체	1.1	16.0	35.4	37.2	10.3	100.0(10,002)
	기혼남성	2.9	24.8	34.9	29.2	8.2	100.0( 1,789)
	기혼여성	0.7	14.1	35.5	39.0	10.7	100.0( 8,213)
⑦	전체	0.3	4.2	27.2	56.4	11.9	100.0(10,002)
	기혼남성	1.3	7.5	34.3	48.0	8.9	100.0( 1,789)
	기혼여성	0.2	3.5	25.6	58.2	12.5	100.0( 8,213)
⑧	전체	0.4	4.3	29.1	55.1	11.1	100.0(10,002)
	기혼남성	1.2	7.7	32.2	50.1	8.8	100.0( 1,789)
	기혼여성	0.3	3.5	28.4	56.2	11.5	100.0( 8,213)
⑨	전체	0.6	3.7	26.4	55.5	13.8	100.0(10,002)
	기혼남성	1.4	5.9	30.6	51.0	11.1	100.0( 1,789)
	기혼여성	0.3	3.2	25.5	56.5	14.4	100.0( 8,213)

〈표 4〉 계속

문항 <sup>1)</sup>	특성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⑩	전체	0.5	4.9	28.4	54.5	11.7	100.0(10,002)
	기혼남성	1.6	7.0	35.7	47.4	8.5	100.0( 1,789)
	기혼여성	0.3	4.5	26.9	56.0	12.4	100.0( 8,213)
⑪	전체	0.6	4.4	25.4	56.9	12.7	100.0(10,002)
	기혼남성	1.4	6.6	29.5	52.7	9.8	100.0( 1,789)
	기혼여성	0.3	4.0	24.6	57.8	13.3	100.0( 8,213)
⑫	전체	0.4	3.3	26.9	57.6	11.8	100.0(10,002)
	기혼남성	1.1	5.4	27.9	53.5	12.1	100.0( 1,789)
	기혼여성	0.3	2.9	26.7	58.5	11.7	100.0( 8,213)
⑬	전체	0.5	2.9	26.3	58.4	11.9	100.0(10,002)
	기혼남성	1.3	4.7	30.9	53.0	10.1	100.0( 1,789)
	기혼여성	0.3	2.5	25.3	59.6	12.3	100.0( 8,213)
⑭	전체	0.4	4.0	27.4	57.4	10.8	100.0(10,002)
	기혼남성	1.3	6.5	30.2	52.7	9.3	100.0( 1,789)
	기혼여성	0.2	3.5	26.7	58.4	11.2	100.0( 8,213)
⑮	전체	0.5	3.6	26.2	59.2	10.5	100.0(10,002)
	기혼남성	1.2	5.9	31.6	52.3	9.0	100.0( 1,789)
	기혼여성	0.3	3.2	25.0	60.7	10.8	100.0( 8,213)

주: 1) ①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②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③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⑤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⑥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⑦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⑧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⑨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⑩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⑪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⑫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⑬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⑭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⑮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71%)’이며, 상대적으로 긍정의 정도가 높은 항목은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70.3%)’,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69.6%)’,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69.7%)’였다. 반면 긍정의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 한다(47.5%)’이며, 상대적으로 긍정의 정도가 낮은 항목은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59.1%)’,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55.5%)’였다.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의 긍정 정도의 차이는 15개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으나 항목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남녀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13.8%p)’였으며, 남녀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은 ‘우리 가족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12.3%p)'와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12.5%p)'였다. 반면 남녀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은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4.6%p)'였으며, 남녀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항목은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8.6%p)'와 '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7.6%p)'였다.

긍정의 정도가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형적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높았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가족은 '가족 간의 대화'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존중과 배려에서 형식적 관계는 원만하지만, 내밀한 친밀성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경향은 남녀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즉 형식적 관계인 '상호 인정', '발언권', '의견 존중'은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내밀한 관계인 '친밀한 느낌', '생각과 느낌의 표현', '여가 시간 함께 보내기'는 남녀의 차이가 큰 경향을 볼 수 있다.

### 3. 가족관계의 영향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가족관계는 가족 내에서 나타는 특징들이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가족 내부의

역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족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적인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관계의 측정은 앞서 살펴본 가족관계척도 15개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는 15개 문항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자녀수, 혼인형태, 동거형태, 맞벌이 여부, 가사분담정도, 배우자 만족도, 자녀 만족도를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sup>11)</sup> 가족관계 영향요인 분석 대상은 15~49세 기혼여성이 있는 가구의 남녀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다.

#### 1) 기술통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특성별로 가족관계 척도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특성별 평균값을 통하여 변화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연령이 감소할 경우, 고학력의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 경우, 재혼에 비해 초혼의 경우에 가족관계가 더 좋게 나타난다. 그리고 가사분담에서 남편의 참여가 많은 경우 좋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며 배우자만족도와 자녀만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우 더 좋은 가족관계를 나타낸

11)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는 연령, 가구소득, 자녀수, 가사분담, 배우자 만족도, 자녀만족도이며, 이 중에서 가사분담, 배우자 만족도, 자녀만족도는 5점 척도임. 그리고 자녀만족도는 앞서 설명한 자녀만족도 항목 중 전반적 자녀만족도 1개 문항을 이용하였음.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는 학력, 혼인형태, 동거형태, 맞벌이 여부임.



표 5. 유자녀 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척도 평균(49세 이하 유배우자 여성이 있는 가구)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명)
연령	15~29세	3.91	0.52	2.00	5.00	287
	30~39세	3.85	0.50	1.47	5.00	2,628
	40~49세	3.74	0.50	1.00	5.00	3,255
	50세 이상	3.69	0.48	2.27	5.00	158
	합계	3.79	0.50	1.00	5.00	6,328
학력	중학교 이하	3.56	0.52	1.80	5.00	268
	고등학교	3.69	0.48	1.20	5.00	2,765
	대학 이상	3.89	0.49	1.00	5.00	3,293
	합계	3.79	0.50	1.00	5.00	6,326
가구소득	200미만	3.62	0.60	1.33	5.00	249
	200~300 미만	3.69	0.51	1.00	5.00	951
	300~400 미만	3.76	0.49	1.20	5.00	1,497
	400~500 미만	3.80	0.50	1.47	5.00	1,267
	500 이상	3.87	0.48	2.00	5.00	2,345
	합계	3.79	0.50	1.00	5.00	6,309
자녀수	1자녀	3.84	0.53	1.00	5.00	1,492
	2자녀	3.78	0.49	1.33	5.00	3,971
	3자녀 이상	3.75	0.49	1.20	5.00	865
	합계	3.79	0.50	1.00	5.00	6,328
혼인형태	양쪽 초혼	3.80	0.50	1.00	5.00	6,190
	한쪽 재혼	3.56	0.59	1.47	5.00	72
	양쪽 재혼	3.58	0.49	2.53	4.87	64
	합계	3.79	0.50	1.00	5.00	6,326
부모동거 여부	비동거	3.80	0.50	1.00	5.00	5,553
	동거	3.73	0.50	2.00	5.00	472
	합계	3.80	0.50	1.00	5.00	6,0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9	0.50	1.20	5.00	3,094
	비맞벌이	3.79	0.50	1.00	5.00	3,234
	합계	3.79	0.50	1.00	5.00	6,328
가사분담정도	전적으로 부인	3.67	0.54	1.00	5.00	1,218
	주로 부인, 남편 도움	3.80	0.48	1.20	5.00	4,417
	반씩 나눔	3.96	0.51	1.33	5.00	606
	주로 남편, 부인 도움	4.02	0.60	2.27	5.00	76
	전적으로 남편	3.75	0.40	3.20	4.13	4
	합계	3.79	0.50	1.00	5.00	6,321

〈표 5〉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명)
배우자 만족도	매우 불만족	2.96	0.63	1.73	4.47	47
	불만족	3.20	0.59	1.00	5.00	325
	보통	3.56	0.42	1.93	5.00	1,827
	만족	3.89	0.40	1.93	5.00	3,158
	매우 만족	4.17	0.47	2.87	5.00	815
	합계	3.78	0.50	1.00	5.00	6,172
자녀 만족도	매우 불만족	3.28	0.90	2.00	4.00	6
	불만족	3.02	0.61	1.00	4.67	93
	보통	3.49	0.44	1.20	4.93	1,505
	만족	3.83	0.42	1.73	5.00	3,750
	매우 만족	4.18	0.51	2.00	5.00	956
	합계	3.79	0.50	1.00	5.00	6,310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반면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맞벌이 여부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 2) 영향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가족관계 척도의 평균분석은 각 요인의 개별 특성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를 보여 줄 뿐이다. 즉 평균분석만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성별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였으며, 기본특성 모델(모델1), 일가족양립요인 모델(모델2), 배우자 만족도 모델(모델3), 자녀만족도 모델(모델4)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표본의 경우 <모델 1>에서 자녀수와 부모동거여부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독립 요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중졸이하집단과 고졸집단에 비해서 대졸이상 집단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는 더 좋으며, 양쪽재혼에 비해서 양쪽초혼의 경우 가족관계가 더 좋았다. <모델 2>에서 맞벌이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사분담에서 남편의 참여가 늘수록 가족관계는 더 좋게 나타났다. <모델 3>과 <모델 4>에서 배우자 만족도와 자녀만족도는 모두 가족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모델 설명력(R<sup>2</sup>)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여성 표본의 경우 배우자 만족도와 자녀만족도가 가족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표 6. 가족관계 영향요인 분석결과(여성)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상수)	3.998 ***	3.704 ***	2.580 ***	1.654 ***
연령	-0.007 ***	-0.005 ***	-0.001	0.002
학력				
중졸 이하	-0.227 ***	-0.224 ***	-0.179 ***	-0.116 ***
고졸	-0.142 ***	-0.138 ***	-0.099 ***	-0.075 ***
대졸 이상(준거)				
가구소득	0.000 ***	0.000 ***	0.000 ***	0.000 ***
자녀수	-0.011	-0.005	-0.006	0.012
혼인형태				
양쪽 초혼(준거)				
한쪽 재혼	-0.127	-0.138	-0.150 *	-0.118
양쪽 재혼	-0.240 ***	-0.297 ***	-0.089	-0.074
부모동거여부				
비동거	0.021	0.002	0.044 *	0.055 **
동거(준거)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22	0.014	0.000
비맞벌이(준거)				
가사분담정도		0.129 ***	0.047 ***	0.033 **
배우자 만족도			0.304 ***	0.262 ***
자녀 만족도				0.240 ***
N	4,430	4,427	4,420	4,407
R <sup>2</sup>	0.072	0.091	0.306	0.391
F	43.159 ***	44.390 ***	176.663 ***	235.111 ***

주: 계수는 B 값을 제시한 것임. 부모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성 표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델1>에서 자녀수, 혼인형태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독립 요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고졸집단에 비해 대졸이상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모동거보다 비동거의 경우 더 좋은 가족관계를 나타냈다. <모델2>에 따르면 맞벌이 여부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가사분담에서 남편의 참여가 늘수록 가족관계는 더 좋게 나타났다. <모델3>과 <모델4>에 따르면 배우자 만족도와 자녀 만족도는 모두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 표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 표본의 경우도 특징적인 점은 모델 설명력(R<sup>2</sup>)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배우자 만족도와 자녀 만

표 7. 가족관계 영향요인 분석결과(남성)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상수)	4.405 ***	4.294 ***	3.160 ***	2.367 ***
연령	-0.020 ***	-0.020 ***	-0.013 ***	-0.009 **
학력				
중졸 이하	-0.081	-0.075	-0.059	-0.066
고졸	-0.102 *	-0.100 *	-0.090 *	-0.083 *
대졸 이상(준거)				
가구소득	0.000 ***	0.000 ***	0.000 ***	0.000 **
자녀수	0.020	0.027	0.023	0.039
혼인형태				
양쪽 초혼(준거)				
한쪽 재혼	-0.253	-0.242	-0.196	-0.192
양쪽 재혼	-0.009	0.004	0.023	0.096
부모동거여부				
비동거	0.168 **	0.159 **	0.129 *	0.125 *
동거(준거)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32	0.005	0.022
비맞벌이(준거)				
가사분담정도		0.057 *	0.072 **	0.048
배우자 만족도			0.207 ***	0.170 ***
자녀 만족도				0.206 ***
N	576	576	466	463
R <sup>2</sup>	0.142	0.149	0.198	0.270
F	11.692 ***	9.911 ***	10.208 ***	13.859 ***

주: 계수는 B 값을 제시한 것임. 부모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족도가 가족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 그러나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 나타난  
 큰 차이가 있는데, 여성 표본에서는 자녀 만족  
 도보다 배우자 만족도가 모델설명력을 더 증가  
 시킨 반면, 남성 표본에서는 배우자 만족도보다  
 자녀 만족도가 모델 설명력을 더 증가시켰다.  
 즉 가족관계에서 여성은 배우자 만족도가 더 중

요한 요인인 반면, 남성은 자녀 만족도가 더 중  
 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4. 분석결과 요약 및 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관계 중에서 결혼생

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약 10%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성별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자녀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녀와 대화정도'였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문화생활'이었다. 그리고 '자녀의 기대 충족' 항목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문화생활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부모의 시간 압박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성장환경에서 자녀의 시간활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관계 척도의 일반적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은 한국의 가족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즉 가족관계 척도 15개 문항 중에서 긍정의 정도가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형적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높았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가족들은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존중과 배려라는 형식적 관계는 원만하지만, 내밀한 친밀성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경향은 남녀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형식적 관계인 '상호 인정', '발언권', '의견 존중'은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내밀한 관계인 '친밀한 느낌', '생각과 느낌의 표현', '여가 시간 함께 보내기'는 남녀의 차이가 큰 경향을 볼 수 있다.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은 가족관계 구성요

소의 특성 차이였다. 여성의 경우는 가사분담과 배우자 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자녀 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남성들이 여전히 전통적 가부장주의 관점에서 자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여성이 가사분담 정도와 배우자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전통적 성역할 구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가족관계에 전반적으로 전통적 가족규범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여전히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고, 이런 갈등 요인이 가족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외부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경우 가사분담과 배우자 만족도에 따라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남성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서, 가사분담이 공평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배우자 만족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와 양육활동의 분담이 남녀 간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가사와 양육활동에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가족관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가족 내부에서는 친밀한 상호 소통의 어려움이 발견된다. 이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말해주며, 특히 가구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가족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가족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